

##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亡母) 추모 양상과 그 의미

최수현\*

— <차 례> —

1. 서론
2.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의 양상
  - 1) 추모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 2) 가문의 부침(浮沈)과 추모의 관련 양상
3.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의 의미
  - 1) 망자와의 소통 추구와 일상 공유
  - 2) 유교 윤리의 실천과 가문 복원의 표식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향유된 국문장편소설 〈보은기우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망모(亡母) 추모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문 의식과 관련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기우록〉은 국문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사 초반에 남녀주인공의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설정한 후 망모를 추모하는 다양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이 인물의 죽음과 그에 대한 추모를 가문의 완성이 이루어진 작품 말미에서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보은기우록〉은 망자를 주인공에게 심리적이자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어머니’로 설정함으로써 추모 과정을 꾀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더욱이 〈보은기우록〉에서 추모 대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부인은 유교 이념에 충실한 인물로, 상행위를 통해 몰락한 가문을 유지하려는 남편과 대립하며 서사에 긴장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남주인공의 어머니 추모는 망자에 대한 그리움을 넘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어서서 그 유지를 받들어 유교 이념에 충실한 방법으로 가문 복원을 성취하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다.

몰락한 가문이 복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보은기우록>에서 망모에 대한 추모 방식은 가문의 복원이 완성될수록 점점 더 철저하게 예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망모에 대한 추모가 망자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교 윤리의 실천과 가문 복원의 표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보은기우록>에서 나타난 망자 추모의 방식은 국문장편소설이 가문 의식을 형상화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 국문장편소설, 망모(亡母), 추모, 가문 의식, 예법, 상례, 사당 고유(告由), 사당 배알(拜謁), 기제(忌祭), 묘제(墓祭)

## 1. 서론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향유된 국문장편소설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은 몰락한 가문을 복원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치부(致富)에 둔 부친과 입신양명에 둔 아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 작품이다. 이처럼 <보은기우록>은 몰락한 가문의 복원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문장편소설들과는 변별되고 있어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이런 연유로 <보은기우록>은 일찍이 정병욱에 의해 ‘구질서의 붕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sup>1)</sup>받으면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의 연구는 재화(財貨)에 대한 시각과 부자 간 갈등 관계에

1)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247-260면.

집중되어 이루어지면서도 여성 의식 측면이나 후편인 <명행정의록>과의 연작 관계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작품의 전모를 살피는데 일조하였다.<sup>2)</sup>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자(亡者) 추모의 양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보은기우록>은 고전소설 가운데서도 망자에 대한 추모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심도 깊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편 분량의 고전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단편 분량의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곧 서사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주변 인물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찾기도 어렵다. 이는 <심청전>에서와 같이 대개의 작품들에서 주변인물의 죽음이 주인공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망자에 대한 추모 장면은 고전소설 가운데 주로 국문장편소설에서 확인된다. 대개의 국문장편소설은 개인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몇 대에 걸친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몇 명의 등장인물이 죽더라도 가문의 영속이 가능해 서

---

2) <보은기우록>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다.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국학자료』26, 1977;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0;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89;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나는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1;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구조」, 『한국학논집』28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연구」, 태학사, 1996;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00;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화사연구』18호,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28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3;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 의식」,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산자의 추모를 장면화 할 수 있다. 특히 <소현성록> 연작, <유효공선행록> 연작, <성현공숙렬기> 연작, <현몽쌍룡기> 연작과 같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는 연작의 후편에 해당하는 작품의 말미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모두 등장하면서 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 가운데 하나인 상례(喪禮) 절차가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sup>3)</sup> 이를 통해 볼 때, 대개의 국문장편소설에서 망자에 대한 추모는 가문의 완성이 이루어진 작품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은 대부분 상례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그런데 <보은기우록>은 국문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사 초반에 남녀주인공의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설정하며 이후 망모를 추모하는 다양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망자를 주인공에게 심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어머니’로 설정함으로써 추모 과정을 꺾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모 행위를 가문 복원의 과정과 맞물리도록 제시해 가문 의식을 드러내는 표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하고 있다.

때문에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작품의 의식지향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망자의 작품 내 위치를 파악한

3)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상례 서술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151면.

4)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하나인 <유씨삼대록>에서는 작품 말미에서 부모세대 인물의 죽음이 등장할 뿐 아니라, 핵심인물인 진양공주가 요절하는 등 작품 곳곳에서 인물들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다(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30면). 그런데 이 같이 <유씨삼대록>에서 서사 중반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죽음은 작품의 중심 가문인 유씨 가문의 창달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며, 추모 행위도 주로 제문과 행장 서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고의 관심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후, 작품에 나타난 망자 추모의 양상을 가문의 부침(浮沈)과 관련해 살펴볼 예정이다.<sup>5)</sup> 이를 바탕으로 망자 추모 양상의 의미를 가문 의식과 관련해 고구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보은기우록>의 의식지향 및 국문장 편소설 가운데 독자적 의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의 양상

### 1) 추모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자 추모의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망자가 주변 인물들과 맺고 있던 역학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망자의 작품 내 비중과 망자와 추모자 간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은기우록>에서 추모의 대상이 되는 망자는 다름 아닌 남녀주인공의 어머니들이다. 18권이라는 장편 분량의 서사를 지닌 <보은기우록>에서는 '어머니'인 여성 이외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은 남주인공이 해결하는 요괴 퇴치 사건이나 송사 사건 속 피해자로 부수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부수적 인물들의 죽음은 남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될 뿐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추모의 대상이 되는 망자는 남녀주인공의 어머니들로 한정되고 있다. 이처럼 남녀주인공의 어머니가 추모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남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주인공의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은기우록>이 남주인공의 가문을 중심 가문으로 설정해 서사를

5)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보은기우록> 18권 18책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남주인공 위연청의 모친인 양부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교 이념에 충실한 것으로 제시되는 양부인은 몰락한 가문을 상행위를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남편 위지덕과 대립하면서 서사에 긴장을 조성하는 인물이다. 양부인이 부덕(婦德)을 갖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위지덕과 갈등하는 것은 가문 복원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다. 양부인의 친절은 양부인이 “일흠는 가문에 어진 녀즈(권지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과 친오빠가 거인(擧人)의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사족(士族)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양부인이 혼인 전부터 사족이라면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하는 것을 지향해야한다는 생각을 지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부인은 혼인 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의 가문 유지를 묵도하게 된다. 위지덕은 명문가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몰락한 나머지 고리대금업과 푸줏간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때문에 양부인은 혼인 후 위지덕이 벌이는 상행위에 대해서 그 정도를 줄여볼 것을 권해보기도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지덕 몰래 어려운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선행을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몰락한 위씨 가문을 복원하기 위해 양부인이 생각했던 방법들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양부인은 위연청을 자신의 뜻에 따라 가문의 복원을 실행해줄 대리자로 생각한다. 이는 양부인이 과거 합격을 통한 가문 복원을 이루기 위해 홀로 기차치성을 드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함께 양

6) 서술자는 양부인과 위지덕의 혼인을 두고 양부인이 “불행이 비우를 그릇 만능(권지일)”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혼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양부인의 친절 역시도 벌열 가문과는 거리가 먼 한미한 사족에 해당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부인은 위연청이 위지덕의 사고방식에 젖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연청에게 직접 몽학(蒙學)을 가르칠뿐더러, 위연청이 5세가 되었을 때에는 친오빠인 양거인에게 보내 6년간 유학(儒學)을 수학하도록 한다. 즉 양부인은 세계관이 형성될 시기의 위연청을 위지덕과 분리시킴으로써 위연청이 유교 이념을 온전히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양부인의 노력은 본가로 돌아온 위연청에게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성정이 포악한 부친의 명을 거역하지 말고 훗날 입신을 하는 것이 효라고 언급하는 말에서도 확인된다.<sup>7)</sup>

이처럼 양부인에게 위연청이 자신의 뜻을 대행해 줄 대리자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위연청에게 양부인은 몰락한 가문을 복원시키기 위해 고생했던 어머니로서 각인된다. 게다가 양부인이 위연청이 11세에 본가로 돌아오고 난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독질(毒疾)에 걸려 죽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양부인이 독질에 걸린 시점에서 위씨 가문은 여전히 위지덕의 상행위를 통해 유지될 뿐이며, 유교 이념에 기반한 복원은 이루어지기 전이다. 때문에 양부인은 위연청에게 유언으로 가문 복원을 부탁하는데, 이는 위연청에게 삶의 지향점이자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2권에서 양부인의 죽음에 등장한 이후 서사 내내 위연청은 양부인을 추모하며, 그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다음으로 여주인공 백승설의 모친인 두부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보은기우록>에서 두부인은 이미 죽은 인물로 소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가 서사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두부인에 대해서는 그녀의 친

7) “너의 부친 성되 잔잉완악하고 무쇼불의하여 평생 형벌이 혹독하고 살성허를 타연이 하니 즈식을 스랑하여 악길 지 아니라 아모리 불의지스라도 네 고갯 역명치 마라 위엄을 범치 말느 타일 입신하여 부모의 붓그러어물 씨스미 효라 하니 공지 임의 아야의 형스를 보고 이 말습을 드르민 눈물이 종횡하여 능히 드치 못허려다(권지일)”

오빠 두경원이 서천 절도사를 지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친정이 사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죽음의 원인이나 시기조차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백승설을 처음 소개할 때 15세이며 모친과 다른 형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두부인이 백승설 이외에 다른 자식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백승설이 15세가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때문에 백승설은 두부인의 제사를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백씨 가문의 제사를 백승설이 담당해야한다는 서술자의 시각은 후에 백승설의 부친 백양이 재혼 후 이들을 얻었음에도 백씨 가문의 제사가 백승설과 위연청의 둘째 아들 위천유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 2) 가문의 부침(浮沈)과 추모의 관련 양상

추모(追慕)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자를 추모하는 행위는 망자의 죽음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은기우록>은 서사 초반에 해당하는 2권에서 양부인과 두부인의 죽음을 제시한 후, 망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모 행위들은 단지 망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가문의 부침(浮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문의 형편을 몰락 상황과 복원이 막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복원이 완성된 후로 나누고 각각의 형편에서 추모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가문 몰락 상황과 상례(喪禮) 주관

<보은기우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몰락한 가문이 복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때문에 서사 초반에 위씨 가문과 백씨 가문은 몰락의 상황을 겪고 있거나 겪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씨 가문은 몰락한 지 오래돼서 위지덕 대에 이르러서는 상행위로 가문을 유지하며, 백씨 가문은 백양이 부임지에서 죄수들의 관리를 잘못해 그 책임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몰락한다.

이같이 가문이 몰락한 상황에서 위씨 가문은 양부인의 죽음으로 상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백씨 가문은 두부인의 신주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망자에 대한 추모는 그 마음은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의례를 제대로 지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위연청이 양부인의 상례를 치르는 정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싱이 잇더 텃디 혼암하고 만신이 분거흠 궂희여 오디 눈물이 피 되고 간장이 솟 되니 모친 손을 붓들고 일언을 더치 못하더니 밋 속광흐를 보고 피를 토하고 것구려져 혼 가디로 시신이 벗겨시니 원의 나가고 업는디라 ..... 모친 유탕이 오히려 귀에 잇고 상네 디둥흔디라 즈고 혼갖 울기만 혼죽 뉘네를 궂초리오 므음을 심철궂치 하고 디통을 구디 끈허 초상을 출히며 성복을 디내며 극읍이 네의 맛궂고 네절이 법을 조츠니 엄엄숙숙히여 일종 상네의 어긋디 아니코 성인의 디은 바른 호리 유츠흠미 업서 관곽의 굶을 스스 친답히여 능히 디리히 우디 못하디 가슴을 치고 피를 뿜으며 소래 발흐면 방인이 창자를 끈흐니 문채 식비하더라 잉잉이 아들이 잇스니 비록 죽으나 꺾디 아닐디라 원의 비록 불근인정흐나 오히려 결발지정을 늦기고 으즈의 디효를 감으혀 치상 관곽 제구는 저기 싱의 디통을 업게 하니 지극흔 효성은 도덕도 감화흠미러라 <보은기우록> 권지이

양부인의 상례에 대해 서술자는 “네의 맛궂고 네절이 범을 조츠니 엄  
엄숙숙하여 일종 상례의 어긋디 아니코”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인정이라고는 없는 위지덕조차도 조강지처가 죽었다는 점을 슬퍼하며 위  
연청의 효성에 감동해 관곽(棺槨)을 비롯한 치상 제구들을 마련하는데  
위연청이 한(恨)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양  
부인의 상례는 의례 절차에 맞춰서 격식을 갖추 이뤄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이 상례는 위지덕이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부인의 상례는 위지덕이 아닌 위연청이 실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두 달간 독일에 걸려 앓던 양부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곁에 있던 이는 위연청만이다. 위연청은 양부인의 임종  
을 목도한 후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고 혼절하지만 곧 상례를 주관할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초상을 차리고 성복을 지내며 하관 절차를 친집  
하고 있다. 따라서 양부인의 상례는 위연청이 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집안에서 상례가 발생했을 때 주관자가 가부장인 위지덕이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양부인의 상례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위연청이 양부인에 대한 상례를 여막살이를 하면서 삼  
년상을 치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연청은  
위지덕과 마주치게 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제시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위연청이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야 복색을 바꾸었다는 점  
으로 미루어볼 때 위연청은 양부인의 상례를 기년상을 한 후 남은 기간을  
심상(心喪)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삼년상을 온전하게 치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친이 살아있는 데 모친의 상을 당했을 때 자식이 기년상을  
치르는 것이 의례에 합당한 것임을 상기해보는다면, 위연청의 삼년상은 양

8) “원의는 요괴로운 니혹으로 부문의 집상하물 즐칙하니 성이 부전을 넘흔즉 화기로  
승안하고 척용을 뵈디 아니 헛더라(<보은기우록> 권지이)”

부인에 대한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의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례가 격식을 갖추어 치러지지 못하는 모습은 가문이 복원되기 전까지 치러지는 양부인의 제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부인의 기제(忌祭)를 챙기는 이가 유일하게 위연청이기 때문이다. 위연청은 양부인의 기제를 앞두고 삼일 전부터 육식을 먹지 않는 것과 기제 당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애도를 표출한다.<sup>9)</sup> 반면 양부인의 기제 당일 위지덕은 친구 강도감의 생일잔치에 다녀와 술에 취해 잠에 드는 것으로, 위지덕의 측실인 녹운도 당일이 양부인의 기일이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양부인에 대한 위연청의 그리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씨 가문이 유교적 의례를 치를만한 범도를 갖추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문의 몰락 상황에서 망자에 대한 추모가 격식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백씨 가문에서도 확인된다. 두부인의 신주는 백양의 귀양으로 인해 백씨 가문이 몰락하자 곧바로 봉안될 곳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조상의 혼백(魂魄)을 대체하는 물건인 신주는 상례 과정에서 처음 제작되는데, 제례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시신을 매장한 후 신주에 글자를 적어 넣는 제주(題主)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우제(虞祭) 때부터는 신주는 혼백을 대신하여 받들어지며<sup>10)</sup> 탈상 후에 치러지는 모든 제사들에서 정침(正寢)에 놓여 제사를 받

9) “다만 금일은 이월지취라 정히 선비 고신지월이니 감히 쥬음을 먹지 못호노라 윤이 놀나 월 낭군이 삼년집상의 적상호시고 또 고신지월의 삼일부터 소호시니 청슈 섬약 호신디 엇디 손상치 아니시리오 이런 줄을 모르고 육찬을 호고로 아니 진호시도다 (<보은기우록> 권지오)”

10) 김미영, 『조상제례의 상징물과 의미 고찰 - 神主를 통해 본 영혼관』, 『동양예학』18집, 동양예학회, 2008, 283-284면.

게 된다. 이처럼 신주는 조상의 혼백을 대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곧 조상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신주는 가문의 사당 안에 잘 모셔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두부인의 신주는 백씨 가문이 몰락 후 복원할 때까지 ‘무석현 백양의 집 → 백승설이 일시적으로 의탁한 집 → 위연청이 새로 마련한 백승설의 거처 → 경사 백양의 집’과 같이 4곳을 이동하고 있다. 백양의 유배로 인해 급작스럽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백승설이 무엇보다도 먼저 두부인의 신주와 제기를 챙기고 있다는 점은 백승설이 신주를 두부인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두부인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가 안정된 공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가문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부인의 신주가 다시금 안정된 공간에 봉안되는 것은 백양이 해배(解配)된 후 이부시랑으로 복직해 가문의 복원을 완성하고 나서이다.

## (2) 가문 복원 시점과 묘지 정비

<보은기우록>에서 가문의 복원이 막 이루어진 시점에 이루어지는 망모에 대한 추모는 망자에 대한 그리움의 표출을 넘어서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양부인의 묘지에 비석을 세우고 묘제(墓祭)를 대대적으로 지내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양부인의 유지를 받든 위연청이 과거에 합격해 가문의 복원을 이뤄낸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양부인의 비석을 세우는 일이다. 실은 비석을 세우는 일은 상례 과정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비석 건립은 『주자 가례』에 따르면 상례 절차 가운데서 ‘급묘(及墓), 하관(下官), 사후토(嗣后土), 제목주(題木主), 성분(成墳)’의 단계에서 시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석을 세우는 1차적인 목적이 묘지 주인의 내력을 알려주는 것에 있

기 때문에 비석 건립은 하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혼인한 여성이 남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남편의 장사를 기다렸다가 비석을 세우기도 한다고 한다.<sup>11)</sup>

그런데 양부인의 비석 건립은 양부인 사후 5년이 지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양부인의 상례를 치렀을 때보다 2년 후이며, 위지덕이 죽는 것보다는 훨씬 이전에 해당한다.<sup>12)</sup> 때문에 양부인의 비석을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위지덕의 죽은 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의 비석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돈을 아끼는 위지덕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 서술자는 양부인의 초상 때에 위지덕이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비석을 세우는 부분에 이르러는 “원니 시뫼이 제던이라도 과홀가 앓기므로 엇지 비석을 싱각허리오 셤디는 현달흔 썩 굿초미 잇거니와 슝디 이호로 낭부인 묘상은 척석을 굿초미 업느니라 (권지십일)”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양부인의 묘지는 비석이 없는 채로 놓여 있다가 이를 늘 한스럽게 여겼던 위연청이 과거에 합격하고 황제로부터 십만관을 받은 직후에 비갈(碑碣)과 문석(紋石)을 갖추게 된다. 때문에 비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위연청이 양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것인 동시에 그동안 추모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예법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부인의 비석을 세우는 일은 비석 건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11) 주자가례의 “及墓, 下官, 祠后土, 題木主, 成墳” 조에 따르면 “부인이면 남편의 장사를 기다렸다가 곧 세우되 앞면은 남편의 지식의 덮개처럼 새긴다”는 補主가 있다. 주자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3, 372면.

12) 위지덕은 <보은기우록>의 후편인 <명행정의록>에서도 위씨 가문의 큰어른으로 등장하고 있다.

라 양부인에 대한 묘제(墓祭)를 모시는 것과 선조들의 묘지를 정비하는 일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연청은 양부인 묘뿐만 아니라 비석이 없었던 선조들의 묘에 비갈(碑碣)과 묘지(墓誌)를 직접 짓고 제작하며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묘지 주변에 심어 묘지가 있는 선산을 화려하게 정비한다.<sup>13)</sup> 위연청이 과거 합격 후 지내는 묘제는 그 전의 제사들과는 다르게 위지덕을 비롯한 위씨 가문의 종족들이 모두 참여해 성대하게 치러진다. 이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의 증가와 묘지 정비는 위씨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곧 위씨 가문의 법도가 예전에 비해 기틀을 잡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연청은 양부인의 유지를 받들어 과거에 합격했지만 그 기쁨을 양부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슬픔으로 인해 묘제를 지내면서 종일 통곡하며 혼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연청의 모습은 양부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3) 가문 복원 완성과 사당 고유(告由)

<보은기우록>에서 가문의 복원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는 망모에 대한 추모는 지나치게 철저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예법을 엄격히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양부인에 대한 추모는 위연청이 아들을 출산했을 때와 같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로 그려지고 있다.

위연청은 백승설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은 직후 양부인에 대한

13) “문져 습더 이하로 모부인 분묘셔디 비갈묘디를 즈작즈셔혀 츠레로 데각하야 턱일 입석하니 옥석비문이 화려하물 극딘이 하여 …… 묘역을 시작하미 십만 관을 허비하고 조지 조역하니 울울송쥬는 십년의 년하고 제제옥석은 동곳기 버러시니 촌남침을 헝치 아니나 장녀하미 극딘하니(권지십일)”

그리움을 슬픔으로 표출한다. 이러한 감정은 백승설이 난산 끝에 아들을 낳자 자식의 출산에는 어머니의 공이 큰 것이라고 한 위지덕의 발화<sup>14)</sup>로 인해 촉발되고 있다. 이 발화를 들은 위연청의 감정은 아들을 얻어 기뻐하던 것에서 순식간에 양부인을 떠올리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위연청의 아들 위천보의 탄생은 위씨 가문이 외적으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방법으로 가문 복원을 이루고 난 후, 내적으로 가문을 이어나갈 계승자를 얻었다는 점에서 몰락한 가문의 온전한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양부인이 늘 원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진 위씨 가문의 복원 모습이다. 때문에 양부인의 유지를 삶의 지향점으로 정한 후 유교 이념에 충실한 방법으로 가문 복원에 성공한 위연청은 이 상황을 양부인과 함께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추모하는 것이다.

(ㄱ) 디노야는 일죽 취침하시거니와 어스노야는 독서하시고 부인은 녀공을 다사리스 스경이 된 후야 취침하시고 니의 각귀기소히여 오경의 계초명 이면 낭위 소세하스 횡당의 신성하시고 스묘의 네알하시느니 일거월제 흐로도 이리치 아닌 날이 엽느니라 <보은기우록> 권지십사

(ㄴ) 부인이 사묘로 향하니 시의 축을 인도하고 노패 뒤흠 좃거늘 미취 먼니 쌀와 어두운 디셔 보니 어식 셔동으로 더브러 입니하여 니문의 맞쳐 동자를 찌르치고 스스로 축농을 드러 사묘의 맞쳐 시녀와 축쾌 계하의 찌러 디고 스스로 축농을 드러 사묘의 니르러 어스 부인을 읍양하여 동셔계로 올라 비알하고 다시 길을 눈호니 <보은기우록> 권지십사

14) “지휘 비로소 통즈의 부인 향흔 마음을 쾌히 알고 더욱 신기 경헝하여 웃고 디왈 이 러키의 어피 공이 더욱 둥하니이다 통지 홀연 혜풍이 스라지고 비운이 취집하니 이는 즈식을 어드민 더욱 모친을 추모하미라(<보은기우록> 권지십칠)”

(ㄱ)은 위연청을 흠모해 위씨 집안에 잠입한 장미주가 위씨 집안 노파에게서 들은 위연청과 백승설의 일상생활이다. 노파의 발화를 통해 위연청과 백승설이 오경(五更)에 일어나 양부인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매일 같이 배알(拜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은 위연청과 백승설이 실제 사당에 배알을 하고 고유를 올리는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다.

고유(告由)란 중대한 일을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알리는 것을, 배알(拜謁)은 사당에 들어가 신주를 뵈는 것을 가리킨다. 『주자가례』 통례(通禮)의 ‘사당(祠堂)’ 조에 따르면 “주인은 새벽에 대문 안에서 배알하며,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아뢴다”고 나와 있다.<sup>15)</sup> 이에 비추어볼 때, 위연청과 백승설의 사당 배알은 『주자가례』식 예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장미주는 몹시 놀라면서 “여츠 즉 스품이 들희여 병드러 죽는 지 만흐리로다(권지십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장미주의 평가는 위연청과 백승설이 사경(四更)에야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경(五更)에 일어날 정도로 뻘뻘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리만큼 엄격할 정도로 예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연청과 백승설의 망모에 대한 추모 행위는 위씨 가문이 예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가문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인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나치게 예법을 준수하는데 경직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15) 주자 지음, 임민혁 옮김, 앞의 책, 62-66면.

### 3.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의 의미

#### 1) 망자와의 소통 추구하고 일상 공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은기우록>은 서사 내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자식들이 망자인 어머니를 추모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모 행위들의 1차적인 의미는 망모에 대한 효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은기우록>은 망자와 추모자 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sup>16)</sup> 위연청은 양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례나 제사를 치르면서 피를 토하고 혼절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백승설은 두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부친이 귀양을 가고 살던 곳으로부터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신주를 가장 먼저 챙기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위연청과 백승설이 눈앞에 더 이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양부인과 두부인을 지극 정성으로 챙기는 것은 망자를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챙기고자 하는 효심이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망자를 추모하는 행위는 곧 망자와의 단절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망자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계기로 망자에 대해 가졌던 마음을 한 순간에 단절하거나 분리시키는 일은 실상 인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죽은 이후에도 망자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을 일상에서 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보은기우록>에서는 망자를 삶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삶을 함께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들이 추모 행위 속에서 발견된다. 위연청이 양부

16) 예컨대 <유씨삼대록>이나 <조씨삼대록>과 같은 작품에서는 망자와 추모자 간의 관계가 동생과 형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어, <보은기우록>과 차이를 보인다.

인의 상례를 삼년상으로 치르는 것은 특히 망자와 단절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연청은 양부인의 상례를 기년상(朞年喪)이 아닌 삼년상(三年喪)으로 치르고 있다. 양부인의 죽음은 위연청에게는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에 예법을 따른다면 생존해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어머니의 상례를 기년상(朞年喪)으로 한 후 담복(禫復)을 하고 심상(心喪)을 해야 한다.<sup>17)</sup> 그런데 위연청은 예법과는 달리 복제를 갖춰 입을 채로 삼년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에 기년상으로 치르고 그 후에 심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예법은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받았으며, 자식들은 예법에 어긋나더라도 삼년상을 치르기도 했다. 예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례에 차등을 둔 것은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집에는 두 사람의 어른이 없는 법이라는 의리’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모친상을 삼년상으로 치르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차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sup>18)</sup> 이를 통해 볼 때, 위연청이 기년상이 아닌 삼년상으로 양부인의 상례를 치르는 것 역시도 양부인에게 향하는 정을 의리로 재

17) 본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어머니의 상을 일 년으로 하는 것은 고례에 근거한 것이다. 『의례』의 ‘父在爲母朞’의 주에 “자식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비록 아버지를 위해 굽혀서 기년복을 입으나 心喪은 삼 년으로 같다”고 했다. 『주자가례』상례 성복조의 자취삼년복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어머니를 위해 기년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모두 삼년상을 지낸다. 만약 삼년상을 지낸다면 집에는 두 어른이 있는 것이니 꺼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程子の 補注가 있다. 주자 지음, 임민혁 옮김, 앞의 책, 273-274면; 이혜순, 『조선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49면.

18) 이혜순, 앞의 책, 149면.

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양부인의 죽음이 비록 서사 초반에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부인은 위연청이 13세가 되던 해에 죽었다. 13년 중 비록 6년을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위연청과 양부인은 정서적으로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양부인 사후에 위연청이 과도한 슬픔을 표출하고 여막살이를 하며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양부인에게 향한 위연청의 애도를 꺾진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비록 죽었는지라도 망자에게 향하는 정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망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보은기우록>의 다양한 추모 행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위연청이 양부인의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막살이를 하거나, 백승설이 두부인의 신주를 소중히 모시고자 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연청이 묘지 앞에 움막을 짓고 망모와 함께 지내는 것은 선산에 망자를 홀로 두고 내려올 수 없어서 망자와 동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집안이 몰락해 당장 기거할 곳도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백승설이 두부인의 신주를 가장 먼저 챙기는 행위는 신주 그 자체를 두부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살아있는 자가 망자와 소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례나 일상례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위연청과 백승설이 가문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사당에 들어가 예법을 갖추서 사안을 양부인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사당에 들어가 배알을 드리는 것은 양부인이 살아있을 때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상례를 통해 망자인 양부인은 사당 안에서 생명체로서의 존재는 상실했지만, 위연청과 백승설의 배례(拜禮)를 수시로 받으면서 집안의 권위자로 군림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조상의 혼령을 생자(生者)와 망자(亡者)라는 구분에 의해 단절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손들과 일상을 함께 영위

하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연속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이처럼 망자와 소통을 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가 곧 망자를 집안의 권위자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는 <보은기우록>에서 가통(家統)을 세우는 행위로까지 확장된다. <보은기우록>에서 위씨 가문과 백씨 가문이 몰락했던 가문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는 위연청이 양부인을 추모하는 것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양부인은 위연청에게 유교 이념을 실천해 가문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때문에 위연청은 양부인 사후에도 그 유지를 받들어 관직에 나가는 것으로 가문을 복원하고 있다. 유교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문의 모습을 만든 후, 양부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매일같이 배알(拜謁)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위연청은 망자가 된 양부인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양부인을 집안의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망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보은기우록>은 망자를 추모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현실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죽음이란 시시각각 발생하는 일이며 동시에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죽음은 늘 일상과 공존해 있으며, 살아있는 자가 망자를 추모하는 것 역시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보은기우록>은 가문 복원에 있어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부인의 죽음을 애써 지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독질에 걸린 양부인을 위연청이 2달 동안 갖은 방법을 동원해 살려보고자 하지만 결국 양부인은 죽으며, 위연청은 그 유지를 받들어 가문 복원에 성공하는 것을

19) 김미영,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348-349면.

보여주고 있다. 즉 망모의 유지를 받들어 가문 복원을 하고자 하는 자식의 절절한 심정과 함께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짚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 2) 유교 윤리의 실천과 가문 복원의 표식

이와 함께 <보은기우록>에서 망모를 추모하는 것은 유교 윤리를 실천한다는 의미와 가문 복원의 표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먼저 추모 행위가 유교 윤리를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보은기우록>에서 망자를 추모하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슬픔이라는 감정을 의례의 형태를 통해 표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망자를 그리워하는 것을 발화나 심리묘사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일상에서 예법을 갖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가운데 표출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유교 윤리의 하나인 효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보은기우록>에서는 유교 윤리의 실천으로서의 망모 추모를 자신의 부모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로 인해 맺어진 인물들에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혼인을 통해 새롭게 생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은기우록>에서 ‘사위장모’, ‘며느리-시아머니’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부인이나 양부인은 위연청과 백승설이 혼인을 올리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다. 즉, 위연청과 백승설에게 두부인이나 양부인은 혼인을 통해 새로 생겨난 부모이기는 하나 살아생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던 이들이다.

그럼에도 위연청은 두부인의 신주가 편안하게 안치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힘을 쓰며, 백승설은 위연청이 과거를 보러 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양부인의 사당을 관리한다. 이러한 행위는 위연청과 백승설이 생모(生母)에게 정과 의리를 다해 추모를 하는 것으로 효를 실천했던 것을 장모와 시어머니에게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망자를 추모하는 방식을 유교 의례의 실천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보은기우록>이 국문장편소설로서 일정한 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기능하고 있다.<sup>20)</sup> <보은기우록>은 몰락한 가문의 복원 방식을 놓고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위지덕과 유교 이념을 우선으로 하는 위연청의 갈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제시해 서사에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보은기우록>에는 시정세대를 보여주는 화소<sup>21)</sup>나 여성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담은 흥미위주의 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sup>22)</sup> 때문에 망자에 대한 추모를 서사 곳곳에서 의례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작품의 분위기가 통속적인 것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보은기우록>에서 망모에 대한 추모가 가문 복원의 표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하자.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자 추모의 다양한 양상은 소소한 일상의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사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몰락한 가문이 유교 이념 아래 가문 복원에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보은기우록>에서 망자 추모는 복원이 이루어지고 난 후반으로 갈수록 예법을

20)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삼대륙계 국문 장편소설에 나타난 喪禮 서술에 대한 논의에서 <조씨삼대록>의 서술자가 작품의 격을 높이고 부자간의 윤리를 강조, 보완하기 위해 결말부의 부모의 죽음이나 상례 절차들에 대한 서술을 강화했다고 지적(정선희, 앞의 논문, 171면)한 것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최수현, 앞의 논문, 26-30면.

22) 최수현, 앞의 논문, 380-389면.

더욱 엄격하게 지키며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연청의 과거 합격 전에 이루어지는 양부인에 대한 추모는 예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기년상과 심상으로 상례를 치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친에 대한 정(情)으로 삼년상을 치르고 있는 것 이외에도 위지덕이 주관해야 할 상례나 제례를 위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하관과 함께 세워졌어야 할 비석도 세워지지 못했었다. 그런데 양부인이 죽었을 무렵은 위지덕이 이미 고리대금업과 푸줏간 운영으로 이윤을 크게 남기고 부호(富豪)가 되어 있는 때이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부인의 상례나 기제를 제대로 챙길 형편이 안 되어 있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법을 준수해가며 망자를 추모하지 않는 것은 위지덕이 유교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위연청은 자신의 경제력 한계로 인해 비석을 세우지 못하고 한스러워하기만 했을 뿐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상례나 제례를 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당시의 위씨 가문은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상층 가문으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망자를 추모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위연청의 과거 합격 후에 이루어지는 망자 추모의 모습들은 예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연청이 과거에 합격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양부인의 묘제(墓祭)를 지내고, 양부인의 묘지에 비석을 세우면서 동시에 선조들이 묻혀있는 선산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행해지는 묘제에는 앞서의 기제와는 다르게 위지덕도 참여를 하고 있으며, 위지덕은 비석의 건립을 위해 위연청이 황제로부터 받은 십만관을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비석을 세우고 선산을 정비하는 일은 가문의 세력이 강성해졌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위연청의 과거 합격은 곧 위씨 가문이 더 이상 상행위를 통해 재화를 벌어들이지 않더라도 녹봉(祿俸)을 받아 그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조차 상한 것을 먹어가며 돈을 아끼던 위지덕이 가문의 복원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비석 건립과 묘역 정비에 십만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묘역 정비를 통해 양부인을 추모하는 행위는 곧 위씨 가문의 성공적인 복원을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모의 방식이 가문의 입지를 드러내주는 일로 작용하는 것은 백씨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배를 갔던 백양은 위연청의 과거 합격으로 인해 해배되면서 동시에 이부시랑을 제수 받는다. 즉 위연청의 과거 합격을 계기로 몰락했던 백씨 가문이 한순간에 회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맞물려 백양의 새로운 거처에는 두부인의 신주를 안치하는 일이 추진된다. 즉 두부인의 신주를 안치하는 추모 행위가 백씨 가문의 회복과 궤를 같이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망자에 대한 추모는 예법을 준수하면서 점점 더 엄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연청과 백승설은 양부인에 대한 추모를 사당 고유(告由)와 배알(拜謁)이라는 의식을 통해 실천하는데 특히 사당 배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경(五更)에 행하고 있다. 장미주에 의해서 과도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이러한 추모는 위연청과 백승설이 예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망자 추모에 있어 엄격한 예법의 준수는 상행위를 생업으로 할

수박에 없던 위씨 가문이 드디어 유교 윤리가 온전하게 구현되고 있는 사족 가문으로서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음을 드러내준다. 위연청과 백승설이 몸소 행하고 있는 추모의 모습을 보고 집안의 노복들조차 경건한 마음을 가지며 탄복하는 것은 그러한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처럼 망자에 대한 추모 양상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는 것으로 변모하며 가문의 입지를 드러내주는 표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곧 유교 윤리의 실현을 통해 가문의 복원과 번영을 추구하는 작품의 지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은기우록>이 이처럼 망자에 대한 추모를 가문의 복원이나 가문의식의 강화와 연관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대개의 국문장편소설들과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연작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국문장편소설들은 작품의 전편에서는 가문의 창달과 번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후편에서는 그러한 번영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주력한다.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그에 대한 추모는 가문이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후편의 서사 말미에서 제시되고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양태부인과 소현성의 죽음이나, <성현공숙렬기> 연작에서 관태부인과 임한주의 죽음이 연작의 후편의 말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점이 그러한 예이다. 등장인물의 죽음이 작품 전편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받은 <유씨삼대록><sup>23)</sup>도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후편으로 이 작품의 중심가문인 유씨 가문은 부마를 낼 정도로 가문의 번영을 이룬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볼 때 <보은기우록>은 연작의 전편에 해당하면서 가문의 복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죽고 그에 대한 추모가 가문의 복원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23) 한길연, 앞의 논문, 4-11면.

가진다.

물론 연작형 국문장편소설들의 전편에서 주인공 부모 중에 한 명이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현성록>에서는 소현성의 부친 소광이, <성현공숙렬기>에서는 임희린의 모친 성부인이 요절(夭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를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드러낼 지라도 대개 후편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sup>24)</sup> 이는 소현성이나 임희린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죽더라도 살아남은 부모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사가 죽은 부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은기우록>에서 양부인의 죽음은 위연청에게 부모의 애정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은기우록>은 가문을 복원하는 과정 내내 위연청에게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양부인을 추모하는 모습을 담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유교 윤리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효(孝)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망자에 대한 추모를 철저하게 예(禮)에 기반을 둔 형태로 표출해 몰락한 가문이 유교 이념에 충실한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을 형상화하는데 일조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연유로 <보은기우록>은 여타의 연작형 국문장편소설과 다르게 전편에서 망자에 대한 추모가 꺾진하게 묘사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24) <소현성록>의 후편인 <소씨삼대록>에서 소현성은 아들 소운성이 유람 중 부친 소광의 필적을 얻어온 것을 보고 부친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현공숙렬기>의 후편인 <임씨삼대록>에서 임희린은 아들 임창홍을 혼인시키면서 이를 사당에 고향 때 성부인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4. 결론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는 남겨진 시간 동안 망자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슬퍼하게 된다. 이처럼 살아있는 자가 망자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행위들을 <보은기우록>은 짙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보은기우록>은 인간이 태어나 맺는 관계 중 애착이 가장 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머니-자식’의 관계를 ‘망자-추모자’의 관계로 설정해 망자에 대한 추모자의 슬픔을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동시에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어머니-자식’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로 맺어진 ‘장모-사위’, ‘시아머니-며느리’의 관계에서 추모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줌으로써 다채로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망자 추모의 양상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은기우록>은 망자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심리묘사나 발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례나 제례, 일상의 예법들에 담아 의례의 형태로 재현해내고 있다.

이처럼 <보은기우록>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망자에 대한 추모는 가문 의식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자식들은 망자인 어머니를 사당에 모셔두고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며 일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곧 망자를 가문의 권위자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가통을 세워나가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보은기우록>이 한미하거나 몰락한 가문들이 유교 이념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가문의 복원을 이루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런 연유로 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 가운데 비석의 건립이나 묘역 정비는 가문 복원의 표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가문의 복원을 이루

고 난 후 이루어지는 망자에 대한 추모 행위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엄격히 예법을 갖춰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곧 가문이 유교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자 추모 방식은 국문장편소설이 가문 의식을 형상화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보은기우록> 18권 18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소현성록> 15권 15책,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성현공숙렬기> 25권 25책, 규장각 소장본(영인 : 김기동 편, 『한국고전소설총서』 1~3, 태학사, 1983)  
<임씨삼대록> 40권 40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주희 지음, 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2003, 1-494면.
-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국학자료』26, 문화재관리국장서각, 1977, 13-18면.
- 김미영, 「제례공간의 통과 의례적 속성 -정침, 사당, 묘소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4집, 비교민속학회, 2007, 599-641면.
- \_\_\_\_\_, 「조상제례의 상징물과 의미 고찰 - 神主를 통해 본 영혼관」, 『동양예학』18집, 동양예학회, 2008, 283-284면.
- \_\_\_\_\_,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348-349면.
-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1, 1-176면.
- 도민재, 「유교 제례의 구조와 의미-기제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42, 동양철학연구회, 2005, 225-255면.
-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구조」, 『한국학논집』28집, 한양대학교

- 한국학연구소, 1996, 279-319면.
- \_\_\_\_\_, 『가문소설의 인물연구』, 태학사, 1996, 1-271면.
- 배영동, 『종가의 사당을 통해본 조상관』, 『한국민속학』39, 한국민속학회, 2004, 117-154면.
-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28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3, 269-288면.
-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나는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 박사학위논문, 1990, 1-224면.
- 유권중, 『유교의 상례와 죽음의 의미』, 『철학탐구』16,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4, 5-32면.
-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1-79면.
- 이혜순, 『조선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414면.
-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화사연구』18호,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130-153면.
-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1-410면.
- 정선희,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상례 서술의 변모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147-178면.
- \_\_\_\_\_,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망자 추모에 담긴 역학과 의미』, 『비평문학』제35호, 한국비평학회, 2010, 361-383면.
-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28면.
-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한국고전연구』14, 2006, 371-400면.
- \_\_\_\_\_,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1-107면.
- 최영갑, 『유교의 상장례에 담긴 죽음의 의미』, 『양명학』19, 한국양명학회, 2007, 389-412면.
-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0, 1-79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30면.

ABSTRACT

The Aspect and Meaning of Memory of the Mother in  
<Boeungiurok(報恩奇遇錄)>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respecting the memory of mother and identify the meaning in connection with Consciousness on family, by studying Korean Classical Novel <Boeungiurok(報恩奇遇錄)> which had been enjoyed from the late years of the 18th century to 19th century.

<Boeungiurok(報恩奇遇錄)> set up the protagonists' mothers died unlike other general Korean Classical Novels, and shows various ways of cherishing their deceased mother continually. This is the exceptional situation considering most Korean Classical Novels show death of people and memory of them at the end of the stories where the completion of the family has been achieved.

Furthermore, <Boeungiurok(報恩奇遇錄)> describes the series of actions that protagonists look back upon the memory of their mothers sincerely as it choose their mothers for the deceased who are the closest kinships and also the most emotionally intimate people. Especially Mrs. Yang, who takes large part of this novel as one of the objects of the memory, is very true to Confucianism. Her ideology creates the tension in this story conflicting with her husband who is trying to sustain his ruined family by engaging in the commerce. Therefore the memory of hero's mother is been expanding to accomplishment of family restoration in faithful way to Confucianism beyond missing to the deceased.

The way to commemorate the memory of the deceased mother is moving toward stricter obedience of proprieties as the family restoration is being achieved in this novel whose plot unfolds in the way of

restoration of ruined family. From this it is confirmed that the memory of the mother is not only to seek communication with the deceased but also a symbol of practice of Confucianism and family restoration. The way of cherishing the deceased mother described in <Boeungiurok(報恩奇遇錄)> carries a meaning as it shows one way out of various figurations of Consciousness on family in Korean Classical Novel.

**Key Words** <Boeungiurok(報恩奇遇錄)>, Korean Classical Novel,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deceased mother, the memory of the deceased, Consciousness on family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